

# 5세 조기 입학

## 반대를 위한

## 긴급토론회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5세 조기 입학  
반대추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정 : 2022년 8월 5일 (금) 14:00 - 16:55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YouTube 마을교육공동체 TV

사회 오채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좌장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상임대표)

### 인사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발제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장

임승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

부모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마유미 (학부모)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교수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장)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교원 문복진 (국공립 서울경동유치원장)

전인수 (제주보듬이 나눔이어린이원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

<https://forms.gle/P9cFwtSt2Dj9kbTh9>

주최 : 국회의원 유기홍의원실, 강민정의원실, 도종환의원실, 문정복의원실, 서동용의원실 (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공동주최 :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관악 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노동자연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 영유아 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 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 시민연대 서울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 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문의 김영연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010-5282-1827), 오채선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010-7176-6776)







## 일정

시간	순서	
~ 14:00	등록	사회 오채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4:00~14:10 (10분)	인사말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강민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14:10~14:55 (45분)	발제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임승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14:55~16:45 (110분)	토론	<p>좌장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상임대표)</p> <p>부모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마유미 (학부모)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p> <p>교수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p> <p>교원 문복진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p> <p>종합토론 및 질의응답</p>
16:45~16:55 (10분)	정리 및 폐회	사회 오채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목차

### | 인사말 | .....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감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회의원 **유기홍**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 발 제 |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 1

한국교원교육학회장 **임승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13

한국아동학회장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 23

### | 토 론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32

**마유미** (학부모) ..... 37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42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장) ..... 46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 54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62

**문복진**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 75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 79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 83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 ..... 87



## 축사

조희연 | 서울특별시교육감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조희연 교육감

| 서울특별시교육청

‘졸속’ 학제 개편안이 아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부가 최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그 의미와 무게와 달리,

최소한의 토론도 거치지 않아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나고 자라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일은

가족의 경사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겐

거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과정이

너무나 가볍게 이뤄졌습니다.

취학연령은

아이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부모와 시민, 교육계의  
밀도 높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학교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와 상의하여 이번 개편안을 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만 4~5세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5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머지않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할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합니다.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  
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지언정,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발표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의 출발 단계부터 차이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모이신 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차분히 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유기홍 의원

|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자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일제히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급기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출범하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임부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님, 임승렬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님,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님과 토론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기입학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국회·교육청·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기습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독단적인 정책발표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만5세 조기 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만5세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조기 입학한 학생은 537명뿐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 입학합니다. 이처럼 조기 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는 입장을 나흘 만에 번복하고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교육개혁을 저지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느닷없이 만5세 입학이라는 학제 개편안을 던졌습니다.

오늘 마련된 긴급 토론회는 뜬금없이 내던져진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에 앞장서 주신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등 여러 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사, 영유아 교육 및 학교교육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제라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그에 적합한 교육에 따라 학교의 유형과 단계를 나누어 놓은 국가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제를 만들고 운영해 온 만큼 새롭게 학제를 개편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학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왔지만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것도 우리 교육의 기본 틀거리를 짜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이에 기반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아무런 준비도 논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 그대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학제 개편을 기습 발표의 대상으로 삼은 무능함과 안이함

을 보고 있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화도 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나 교사 등의 분노를 접하고서야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방향 정해두고 진행하는 공론화가 어떤 공론화일지는 볼 보듯 뻔합니다. 그 사이 자신들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라는 교육부 장관의 행정이 이토록 미숙해서야 되나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졸속 추진과 대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 교육 당사자와 전문가 분들께서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제 개편안 발표의 문제점도 잘 따져주시고 앞으로 학제 개편은 어떤 맥락과 논의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신 말씀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5일  
국회의원 강민정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도종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도종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유기홍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력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초등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계 전체는 발칵 뒤집혔고,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그제야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2007,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수 일시 증가, 교육과정 혼재, 교원 및 시설 부족 문제, 대입과 노동시장, 유아 발달의 문제 등을 이유로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제는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이미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장관은 기존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근거도,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졸속·일방 추진입니다.

아이의 1년과 성인의 1년은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5세와 6세의 차이는 고작 1년의 차이지만, 그 1년 사이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며 끊임없이 바뀌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정책을 세울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충분히 뛰놀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그런 아이의 소중한 1년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OECD 어린이 행복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극심한 교육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으며, 공부만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도,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5세 조기 입학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아낌 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그 날까지 국회도 여러분 발걸음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좌장,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문정복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관련부처, 교육기관 및 종사자 등 범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되려 큰 혼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만5세 조기입학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습니다. 정부의 숙고 없이 강행중인 이번 학제개편안을 접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제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할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하고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입학 초등학생의 돌봄과 사교육 등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 또한 가중될 우려가 큼니다.

제대로 된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숙고를 거친 뒤 시행돼야 합니다. 오늘 마련된 소중한 자리를 빌어 학부모님과 교육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서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5세 조기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임부연, 임승렬, 이완정 교수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심성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교수님들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팍 막힌 불통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은 확보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발표로 질타를 받더니, 이제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취학연령까지 하향하겠다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불량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의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정책추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1항은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아기 놀이학습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함양해야 할 연령대의 아이들을 학교에 1년 더 일찍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이 노동인구 조기 편입과 아이들을 1년 일찍 사교육시장으로 또는 취업전선으로 내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제개편과 같은 큰 담론은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대전제 위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졸속 정책을 폐기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의 첫 시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여론 눈치를 보느라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정부가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정책을 세우는데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기꺼이 함께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오늘의 자리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국민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전달하는 길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8월 5일  
국회의원 서 동 용



## 발제

임부연 |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임승렬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장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완정 |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5세 취학이 부적절한 이유: 발달의 적기와 순조로운 전이의 측면에서



발제

##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 1. 어른의 이익에 실종되는 어린이의 슬픈 역사 되돌아보기

우리는 언제부터 올곧이 어린이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어린이, 아동기, 유아기라는 용어의 탄생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가난과 노동, 사회적 편견에 내몰려 어린이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던 시기가 많았다(김소영, 2020; 임승관, 2022; 최기숙, 2001; Bjorklund, 2010; Key, 2012). 근대사회로 접어들어 어린이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를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는 어른의 편의주의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자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지금도 어린이는 어른들이 만든 학력 사회 계급 사다리의 맨 아래에 존재하는 소수자로서 어른들의 이해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교육부, 2022.07.29)’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문제의 해소를 위해, 높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의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고 초등학교 교실로 빠르게 진입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격차 해소, 출발선 평등, 인재 양성이 라는 미명 아래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온전한 시기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어린이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소수자이고 약자이며 소외된 주체이다.

### 2.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 살펴보기

#### 1)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적 정책

어린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영유아기(만1~5세)의 고유한 시기를, 놀이를 통하여 충분히 세계를 배우며 커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아기는 단순히 인지발달이나 언어 및 수학적 능력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시기가 아니다. 어린이는 미래사회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유아기를 건강과 안전, 충분한 놀이를 통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즉, 유아는 어른의 편의에 의해 1년이라는 유아기를 박탈당할 수 없는 실존적 존재다.

K-학년제는 배경으로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와 ‘행·재정체계 일원화’로 인한 효율성을

강조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이러한 자료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이 모두 사회의 행·재정적 효율과 이윤을 위한 '어른들의 계산'임을 말해줄 뿐 어디에도 유아기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하다. '유아기는 어른들의 이해와 계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연령인가? 어린이는 어른들의 계획에 의해 발달과 본성이 바뀌는 존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한다.

## 2) 학부모들이 선택하지 않는 비현실적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선택하지 않고 폐기된 정책이다. 부모들은 조기입학이 가져오는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험 등으로 조기입학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김주후, 김경란, 유운영, 2011). 어떤 부모들은 오히려 뒤처지는 자녀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등학교 입학의 만 6세로 1년 유예하는 선택을 할 만큼 유아가 일찍 학력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삼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가가 모든 유아의 출발 평등성을 걱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교실에 일찍 입학하여 뒤처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 3) 격차 해소보다 격차 심화를 가져올 근시안적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격차가 해소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추론이다. 교육의 격차는 초등학교에 일찍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유아교육 내부의 격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과 현재 교사 처우의 격차, 교육 및 보육을 나누어 보는 몰지각한 인식으로 인한 운영상의 차이,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소모 등에서 발생한다. 실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의 차이를 염려하고 있다. 이를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학습 격차는 우리나라 사회와 가정이 가진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 등에 의한 가난의 재생산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자녀의 뒤처짐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더욱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교과 중심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발달상으로 유아기를 살고 있는 조기입학 유아(만 5세)의 학습부진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오히려 격차 해소 아닌 격차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4) 사교육비 감소보다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비실용적 정책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무너짐과 이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사회, 대학입시 서열화에 대한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과도

한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초등학교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우남희, 김현신, 백혜정, 2005; 권정운, 2007). 현재 대학교육을 받은 고소득 젊은 부모에서부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까지 한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에서 사교육은 예체능 교육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읽기와 쓰기, 수학과 영어 교육 등 핵심 교과교육을 중점으로 소위 선행학습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가족(한부모, 조모, 외국인 가정 등)은 소수자이자 빈곤층으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소외됨으로써 오히려 계급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공교육과 공평한 시작이라는 미명아래 사교육의 폐해가 만 5세 유아에게까지 급격히 쓰나미처럼 몰려올 우려가 크다.

##### 5) 학력 중심 인재 양성으로 창의인성교육이 상실되는 반미래지향적 정책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형 인재양성의 부족과 인성교육의 결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화와 학력 중심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미래형 인재양성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더 내몰리며 학력 중심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미명아래, 마치 수학과 과학과 같은 교과지식중심 교육만이 강화되는 ‘반전인적 교육과정’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다시 핵심 교과가 부각되고 유아기 언어능력 평가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유아를 조악한 3R, 즉 ‘읽고, 쓰고, 셈하기’ 교육으로 내몰고, 1년의 발달상 차이가 나는 동급생과 동일한 교과교육이 적용되는 교실에서 긴장과 경쟁, 불안과 실패한 교육적 경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는 전 세계적 교육 동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OECD(2018)에서 교육은 미래 인재를 새로운 가치창출, 긴장과 딜레마를 대처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적 학습자로서 변형적 자기 역량과 삶과 얹이 분리되지 않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의 또래와의 놀이경험, 협력과 긴장의 경험, 발달의 차이가 충분히 보장되며 다양한 체험과 느슨한 일과 속에서 유아는 충분한 유아기를 향유하며 창조와 인성의 싹이 발현되는 시기를 행복하게 즐길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 교육의 발달, 교육과정 동향, 페다고지에 대해 충분한 역량 갖춘 전문적 유아교사의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다.

##### 6) 유아 교육과정의 오랜 지적 전통과 교사 양성 시스템을 붕괴하는 반민주적 정책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약 30만 명이 넘는 전문적 훈련을 가진 영유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공교육의 직접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약 백 년을 넘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지속해온 역사를 가진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창조된 영유아기 고유의 프로그램과 국가수준 교육과정 등 오히려 과도하리만치 축적해온 지적 전통

을 가진 분야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도 차별되는 고유한 콘텐츠를 축적해 왔고, 최근에 '어린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깊은 이해를 통해 '유아중심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더해져 양질의 교육과정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미래사회 인재양성은 전 세계적 관심사이며, 이는 교사와 교과중심의 암기·주입식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현장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발생학적으로 생태적인 교육과정의 담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미래 인재는 학습자의 삶과 삶이 충분히 보장되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이 담보될 수 있는 엄중한 교육적 상황이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22 초중고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이미 실행되고 있는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으로 영유아교육의 지적 전통이 총체적 결과물이자 미래형 교육과정의 씨앗이다. 유아들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충분한 놀이를 통해 삶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창의성과 학습력을 강화해 가는 배움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유아기의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현장형 유아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영유아 교육계가 오랜 축적된 지혜를 집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권귀염, 2018; 김영옥, 2019; 김은영, 강은지, 염혜경, 2017; 김희연, 정선아, 2006; 문미옥, 2018; 이기숙, 2015; 오채선, 2018; 이경화, 2019; 유혜령, 2019; 임부연, 2019; 정선아, 김희연, 2011).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의 결과는 이러한 유아교육의 오랜 지적전통을 위협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초등학교 준비교육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 더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만 5세 유아가 사라지고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며 돌봄만을 하는 비교육적 기관으로 인식될 우려 또한 크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 교사교육자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시스템적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만이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의 오랜 지적 전통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양질의 다양한 현장형 콘텐츠를 사장시키는 몰지각한 발상이다.

#### 7) 유초연계 절벽교육과정을 심화시키고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해체하는 비(非)교육학적 정책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1학년은 얼핏 보기에 시간상의 1년 차이로 심각한 발달상 전이가 우려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아기의 뇌 발달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Abbott, 1997; Bourgeois, 2001; 김유미, 2006; 김성일, 2008; 서유현, 2010)은 유아기를 매우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지적하며, 유아기의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국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은 내용상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도록 조직되어 큰 편차가 없는 연속적 교육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중심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식은 유아의 삶과 놀이에 기반한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는 근본적으로 판이 다른 급격한 차이를 가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아기의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절벽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여 왔다(정광순, 박채형, 2017). 유아기의 초등 조기 입학은 몇 개월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원만한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복잡성을 전혀 전문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발상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놀이와 생활이 느슨하게 조직되어 교과로 편성·운영되지 않고 경험과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통합한 누리과정(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국가수준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는 초등학교의 교과중심 시간표와는 근원적 차이를 가지는 통합교육과정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며 배우는 유아가 초등 교실에서 40분 동안 고정된 책상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자신의 신체가 감금되어 마치 유아기의 행복한 경험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안기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내용보다 운영에 있어 근원적 차이를 가진다.

교육과정은 내용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습자가 배우는 경험과 기억을 만드는 편성과 운영방식에서 더 근원적 차이를 가지며,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 최근 역량중심 및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미래지향적 담론이다(최수진 외, 2019; 허주 외, 2020/2021).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어린 학습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교육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유아에게 맞는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동등한 학교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출발선 평등은 초등학교 입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격차를 줄이면 평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또한 발생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유초연계를 위하여 학습자로서 유아는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기억을 만들고, 이를 자신만의 교유한 역량으로 성장 발달해 가는 복잡한 심리적 교육과정과 실존적 교육과정이 충분히 지원받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유아기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박창현, 윤지연, 김근진, 2021).

최근 이루어진 정책보고에서는 이러한 유아기 심리적 및 실존적 교육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은 오로지 행·재정적 결손의 보완과 학력 인구 감소를 유아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반쪽짜리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영유아 교육과정의 고유한 폐다고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유아학교체제에 국가책임이 필요

유보통합 논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안에서 시작되었다(나정, 1997).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확립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이후 유치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3~5세 공통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등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정부(교육부, 복지부)와 현장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영유아 시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유보통합 대신 5세 조기 입학을 추진하려고 할까? 영유아교육이 교육체제가 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영유아교육이 초등학교 교육과 관계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등하고 강력한' 관계는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OECD 국가 중 성공적인 유보통합과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한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영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동등하고 강력한' 관계 설정에 있었다(Moss, 2013).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를 일찍 가는 것 보다 영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 '영유아학교체제'의 확립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체제'는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모두 중요하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9) 미래유아학교로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

(별지 참조)

### 3.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 철회 및 요구사항

- 1)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 2) 유아기의 충분한 삶과 양질의 배움이 유지되는 영유아 학교 체제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 3) 유아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유보통합의 정책을 논의하는 현실적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 4) 영유아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에 이어 영유아 교사 통합을 위한 교사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5)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마련되는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6) 영유아 교육 정책은 영유아 교육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대학, 학회, 예비 영유아 교사, 학부모 등)가 모두 포함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권정윤 (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권귀염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유아교사의 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47-72.
- 김영옥. (2019). 유아중심 관점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사유(思惟). **유아교육연구**, 39(2), 235-253.
- 김은영, 강은진, 염혜경(201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2017-3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유미 (2006). 뇌 발달 접근에서 본 유아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26(4), 31-49.
- 김성일 (2008). 학습자 중심의 학제 개편: 교육심리학적 공헌. **교육심리연구**. 22(4), 859-880.
- 김소영 (2020). **어린이라는 세계**. 파주: 사계절.
- 김주후, 김경란, 유운영 (2011).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취학 전 유아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신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1), 99-116.
- 김희연, 정선아 (2016). 어린이의 삶의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보육과정의 본질: 발달과 교과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5), 355-376.
- 나 정 (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보고서 97-1).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문미옥 (2018).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발전적 미래방향. **누리과정, 놀자! 놀면서 배우자**, 2018 누리과정 현장포럼 자료집, pp.11~34.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 박창현, 윤지연, 김근진 (2021).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 2021-0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유현 (2010. 03. 27). 영유아기 뇌 발달과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학제 간 접근. **다양성과 통섭을 향한 이 시대의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7-25. 부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임승관 (2022).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 파주: 아틀.
- 오채선 (2018). 자율성으로 본 유아교육과정 재설계. **유아교육연구**, 38(4), 415-443.
- 우남희, 김현신, 백혜정 (2005). 조기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이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유혜령 (2019). 놀이기반 배움의 방향에 관한 탐색: 표상을 넘어 사건으로. **어린이교육비평**, 9(2), 57-85.
- 이경화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교육비평, 9(2), 5-33.

- 이기숙 (2015). 한국 유아교육과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망.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조망**,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9-47. 서울: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3층 대극장.
- 이연승 (2010. 03).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육아정책포럼**, 17, 44-45.
- 이정민 (2019). 그리고 영유아교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주: 들녘.
- 임부연, 손연주 (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배움'의 의미.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3), 265-287.
- 정영모, 구정화, 최윤정, 정익중 (2022.07).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 ISSUE PAPER**, 121-148.
- 정광순, 박채형 (2017).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인식하는 관점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1(4), 121-143.
- 최기숙 (2001). **어린이야기, 그 거세된 꿈**. 서울: 책세상.
-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박상완, 이상은 (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연구보고 RR 2019-06).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 이현, 민현정, 김민희 (2022.07).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 ISSUE PAPER**, 5-58.
- 한석실 (2010). 유아교육학 입장에서 본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입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155-185.
- 허주, 정미경, 권순형, 민윤경, 최수진, 김은영, 김갑성, 최원석, 이슬아 (2020).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연구보고 RR 2020-03).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허주, 정미경, 박균열, 권순형, 민윤경, 정혜주, 김갑성, 최원석 (2021).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 2021-03).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Abbott, J. (1997). To be intelligent. *Educational Leadership*. 54(6), 6-10.
- Bjorklund, D. F. (2010). **아이들은 왜 느리게 자랄까: 아동기의 완전한 이해** [*Why youth is not wasted on the young: Immaturity in human development*] (최원석 역). 서울: 알마. (원전은 2007년에 출간)
- Bourgeois, J. P. (2001). Synaptogenesis in the neocortex of the newborn: The ultimate frontier for individuation? In Collins, M. L. & Nelson, C. A.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pp.23-44).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Key, E. K. S. (2012). **어린이의 세기** [*Das Jahrhundert des Kindes. Hericus*] (정혜영 역). 서울: 지식은만드는지식. (원전은 1900년에 출간)
- Moss, P. (2013).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관계를 재개념화하기** [*Early childhood and compulsory education: Reconceptualising the relationship*] (정선아, 윤은주, 이진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2년에 출간)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The future we want**. Paris: OECD Publishing.

# MEMO



발제

##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임승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장

##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임승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교원교육학회장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하여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표현만 달랐을 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철회 또는 폐기된 바 있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실패하여 정착되지 못했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근거는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0-5세)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능 강화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만 5세 조기 취학이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저출산 시대 대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유아, 학부모 측면. 그리고 교사와 교사양성과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만 5세 조기 취학이 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에 익숙한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유아교육기관과는 전혀 다른 낯선 교실 환경과 구조화되고 엄격하기까지 한 분위기에서 교과 중심의 수업을 받고 생활하는 급격한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전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당수의 학생은 학교 불안, 새 학기 증후군으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현상은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만 5세 조기 취학 허용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1997년~2008년사이의 만 5세 조기취학율은 시행 초기보다 급격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2008년사이에 만 6세의 취학 유예는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학부모가 조기취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조기 취학아의 학업능력 부진,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의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 그리고 조기 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자녀의 성장발달이 다른 아이에게 뒤떨어짐으로 인한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학업 부진에 따른 학교생활에

의 부적응을 염려하여 만 6세 취학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는 조기입학을 선호하던 영악한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1세 어린 조기취학아가 학교 또는 학급에서 또래들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셈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 생활 적응 여부는 그 이후의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학교 생활 적응 여부는 유아의 인지 발달보다는 사회·정서적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 5세 유아는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회 정서적 적응능력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만 5세 조기 취학은 5세아들을 4년에 걸쳐 매년 일정비율만 입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 연령의 유아들에게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교육부의 만 5세 조기 취학의 취지 중 하나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커녕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만 5세 조기 취학은 유아의 삶의 질의 차원에서도 유아의 행복과 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2국 중 최하위인 22위이다. 뿐만 아니라 UN은 이미 대한민국에 대해 과잉학습으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 권리 침해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과잉 교육열로 인해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은 단순히 5세 유아가 학교에 입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래들과 즐겁게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배움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선 학업성취를 위해,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원 등 사교육에 맡겨질 것이고 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아기에는 사회·정서·인지·신체 발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아들을 강제로 취학시켰을 때 혹시나 나타나게 될 지적·정서적 또는 신체적 장애는 고스란히 그 유아의 몫인 것이며 그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만 5세 조기 취학은 어른들의 필요가 아닌 유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기 취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만 5세나 만 7세에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현행 초등교육법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 만 5세 조기 취학이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 주었던 조부모, 친인척 등 양육 조력자들의 기능이 약화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결국은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1년 더 앞당기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일찍 끝나며, 어린이의 돌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교가 끝나고 유아들은 다양한 학원을 전전하게 될 수 밖에 없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 중 7세부터 12세까지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경력 단절하는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 5세 조기 취학은 자녀에게는 한 살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무한경쟁 사회로 내모는 것이 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준비도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출을 피할 도리가 없어 자녀의 사교육을 위한 가계 지출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일하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게 되어 가계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만 5세 조기 취학은 초등학교 교원의 역량을 고려하고 있는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왜, 무엇이 문제인지 유아와 학부모 측면만을 부각되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5세 유아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교육 전공자로서 본 발제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5세 유아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역량과 그러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5세 유아를 누가 잘 돌볼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 유아의 학습 방법,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실습을 통해 실제로 유아를 가르쳐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그러한 경험이 전무한 교사보다 유아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학습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는 모든 교육적 요인을 유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에 의해 적절한 교육방법과 자료를 선택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개개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독특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어떻게 학습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교과내용 전문

가이다. 다양한 교수 전략과 매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들과 생활함에 있어 민감성을 보이며, 부모와 동료들 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유아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문제는 유아교육의 질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은 현행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도 교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는데 있다. 초등교사로서는 연령이 낮은 1학년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는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현재도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저학년 학급에 담임으로 배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 5세 조기 취학은 초등교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초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감을 무너뜨리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교사의 배정시 담임교사의 유아교육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예상되는 만 5세 담임 기피와 어려움은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 편람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양성과정과 초등교사 양성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습대상자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 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컴퓨터과목은 소프트웨어기초소양,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표 1] 자격별 기본이수과목

\* 교육부 (2022). 교원자격 검정 실무 편람. 세종: 교육부.



교육부의 교원자격 검정 실무 편람에 의해 실제 교사 양성대학에서의 유치원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초등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 기초	유아 교육론	유아 놀이지도	영유아 발달					
전공 필수				유아 교육과정, 유아 미술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모교육, 유아 과학교육	아동문학	보육실습,	
전공	아동교육 철학 및 유아교육 사	아동복지, 아동 동작교육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 안전관리, 유아 음악교육, 유아 언어교육	영유아 교수방법	아동 생활지도, 유아sw 멀티 미디어 통합 교육론, 유치원 현장 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동 건강교육, 유아 사회교육	유아 수학교육, 가족관계, 유아 교사론
교직 전공					유아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 교과 교육론,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		
교직 과목						교직실무	학교 현장실습	

[표 2] A 대학교의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초등 교육론		초등 교육과정		초등 교과 교육론	현장연구 및 실습		초등교육 현장실습
전공	초등 체육교육 및 실기	아동문학,  아동 발달과 교육,  초등 미술교육 및 실기	초등과학 기초이론,  초등사회 기초이론,  초등 컴퓨터 교육,  초등국어 기초이론,	초등 과학교육 방법,  초등 사회교육 방법,  초등 국어교육 방법,  초등 음악교육 및 실기	초등수학 기초이론,  초등영어 기초이론,  초등 실과교육,  초등 종교 및 도덕교육 이론,  초등학교 학급경영,  초등교육 현장연구	초등 수학교육 방법,  초등 영어교육 방법,  초등 종교 및 도덕교육 방법,  통합교육 과정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초등학교 학급문화 및 경영,  아동과 가족관계 이해,  융복합 시대 초등교육,  세계의 초등교육	창의성 교육방법,  초등교육 행정 및 경영,  열린교육 의 이해,  초등교사 전문성 및 리더십,  초등 교육현장 역량개발
교직 전공					초등 교과 교육론	초등 교과 유아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초등 교과 논리 및 논술
교직 과목								

[표 3] B 대학교의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

본 발제자는 유치원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우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미래 학습자들을 위해 교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가에 관심이 있다. 두 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교육기관에 속한 학습자에게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유아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적절하고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역시 초등교사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의해 초등교사 자

격을 취득한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사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은 결국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 높은 초등교육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실습,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유치원현장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유아교수법 등은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예비 초등교사라 하더라도 배우지 않은 교과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실제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수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총화라고 하는 학교 현장실습의 내용과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초등 예비교사의 자격 취득 이후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왜 만 5세 조기 취학이 초등교사의 역할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영역 및 교과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바른생활/즐거운 생활 국어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수학

[표 4]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이 연착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는 유치원 교육의 대상인 만 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에서 매우 연속적이고 유사한 발달과제를 가지고 있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개정누리과정의 영역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의 교과 구성을 살펴볼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통합 형태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됨에 따라 누리과정과 논리적이고 조직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 5세 유아가 조기 입학을 한다고 하여도 교과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표피적인 비교에 기인하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즐겁게 놀이를 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교사를 놀이 지원자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수학습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2015 개정 교육과정’초등학교 1-2학년군의 교수학습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항과 비교(<표 5>)해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표 5〉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비교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학교는 교과목 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교과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 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5]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비교

유치원의 학습이 경험과 놀이중심의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반면, 초등학교는 교과목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 준비가 되어 있는 않으면 학습 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환경 및 시설이 상이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다. 유아기 발달 특성상 개인적 발달에서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한 개인 내에서도 발달영역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발달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육 즉, 집단교육보다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이어지는 학교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 누리과정의 교수-학습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표 5>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줄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수매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 5세에 조기취학하는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만 5세 조기 취학의 대안은 무엇인가?

유아교육과 만 5세 유아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특성을 무시하고, 저출산시대 대비 인재 육성,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선결되어야 할 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만 5세아를 위한 교육은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이 무엇인가와 그들의 ‘행복하게 살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 라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 5세아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이들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만 5세 조기 취학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초등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만 5세 조기 취학아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예비교사들의 역량을 길러주기에 적합한가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런 조치에 앞서 만 5세 조기 취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유보통합의 지리했던 과정과 절차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보통합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진통 끝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비 지원 등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첫 단추 이상을 채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초 연계교육의 강화와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든간에 유아교육이 기간학제에 포함되는 것이 만 5세 조기취학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MEMO



발제

5세 취학이 부적절한 이유: 발달의 적기와 순조로운 전이의 측면에서

---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



## 5세 취학이 부적절한 이유: 발달의 적기와 순조로운 전이의 측면에서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sup>1)</sup>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취학연령을 5세 기준으로 앞당기는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발달의 적기 측면과 순조로운 전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초등취학 연령과 발달 결과에 대한 연구 동향

초등 취학 연령이 빠르거나 늦은데 따라 아동의 발달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다. 근래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된 미국뿐 아니라 호주나 아시아 등 각국에서 자주 인용<sup>2)</sup>되는 연구는 2015년에 발표된 소위 ‘스탠포드 연구’로 칭해지는 연구<sup>3)</sup>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덴마크 아동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덴마크는 6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으나 남아의 20%, 여아의 10% 정도가 취학을 1년 늦추는 편이어서 초등취학 연령과 발달 결과에 대해 중장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초등취학연령이 높은 아동이 학교 성취도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취학연령 시점의 효과라기보다는 검사를 받는 시점의 아동연령이 높기 때문에 동일 학년의

1)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https://www.businessinsider.com/school-start-age-2017-3#:~:text=A%20study%20out%20of%20Stanford,they%20were%207%20and%2011>

• <https://www.image.ie/self/the-best-age-to-start-big-school-we-asked-a-child-psychologist-131047>

• <https://sg.theasianparent.com/when-should-my-child-start-school>

3) Dee, T. S. & Sievertsen, H. H. (2015). THE GIFT OF TIME? SCHOOL STARTING AGE AND MENTAL HEALTH. Working Paper 21610 <http://www.nber.org/papers/w21610>

또래보다 발달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효과가 혼합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Dee 박사와 Sievertsen 박사가 수행한 이 연구는 모든 아동이 발달 검사를 받을 때의 연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취학 시 연령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의 결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초등취학연령이 1년 늦은 아동은 비교 집단에 비해 7세와 11세 때 각각 주의력 부족/과잉행동(inattention/hyperactivity) 수준이 뚜렷하게 낮고, 자기통제(self regulation)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Dee 박사와 Sievertsen 박사는 본인들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주장되어오던 논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 보았는데, 이는 초등취학을 1년 늦추면서 아동들이 '비형식적 놀이기반 프리스쿨(informal, play-based preschool)에서 언어발달을 보완하고, 인지 및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규제(self regulation) 능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발달에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특히 가장놀이(pretend play)는 사물과 행위를 실제와 분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예: 바나나를 전화기로 사용)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사고과정을 증진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놀이 중 가상의 실제들에 지속적으로 얽매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놀이를 통해 인지적 자기규제와 정서적 자기규제를 증진시켜야 한다. 학교 입학의 늦추게 되면 아동은 이 시간 동안 보다 비형식적이고 놀이중심적인 커리큘럼에서 발달의 핵심 요소를 성숙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초등입학을 1년 더 늦춘 아동들은 동 학년의 또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relative maturity)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절대적인 성숙(absolute maturity)이 더 이루어졌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숙해있느냐 보다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시점에 절대적으로 성숙해있느냐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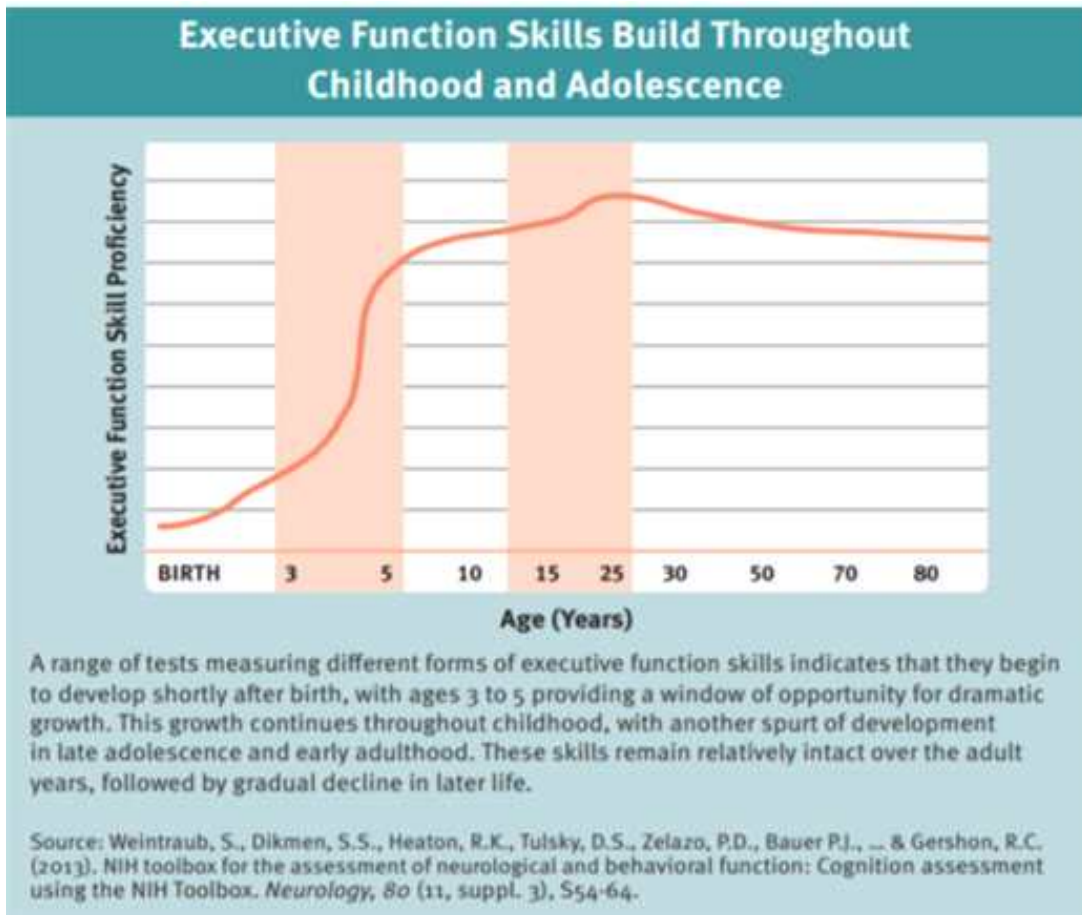
최근 기술 습득의 경제적 모델(economic models of skill formation)에서는 이전의 기술 습득이 이후의 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를 늦게 시작함으로써 절대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은 보다 학교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술 습득의 경제적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절대적 성숙을 이룬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킴으로써 이들 모두가 순조롭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효과의 크기(effect size)가 크게 나타난 변수인 자기규제(self regulation)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규제는 근래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지능력과 사회능력에서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핵심 요소<sup>4)</sup>이다. 실행기능은 영유아기에 급속히 형성되지만 청

4) 실행기능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통제, 자기조절: 충동을 참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 작업기억: 단기간 내 정보를 보유하고 조절하는 능력. 아동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해가며, 학업 준비도와는 다르다. 실행기능은 두뇌에 복잡한 국제공 항의 교통통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 실행기능은 학교에서의 성취, 사회적, 정서 적, 도덕적 발달과 연결된다. 유아기 실행기능은 개인차가 커서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 실행기능의 발달은 영유아가 맺고 있는 주 양육자나 주변 성인, 또래와의 "관계" 가 주요역할을 한다. 특히, 영유아의 실행기능은 질 높은 기관의 놀이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연결하게 해 줘.  
 • 인지적 유연성: 변화되는 요구, 우선순위,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하는 능력. 협업에서도 중요.  
 ※ 출처: <https://developingchild.harvard.edu/>

실행기능 발달을 증진시키는 방법: 실행기능을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반응적이고 사려 깊은 성인이 영유아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며, 영유아와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 Reduce stress 차분하고 유능한 성인이 유아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Foster social connection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게 하고, 성인과 함께 열려있는 창의적인 놀이(open creative play)를 한다.
- Incorporative vigorous physical exercise 활발한 신체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회기술을 증진시키고, 두뇌발달을 촉진한다.
- Increase the complexity 개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도전이 되는, 지나치게 좌절할 만한 수준은 아닌 과제를 향해 단계별로 접근한다.
- Include repeated practice 유아가 지원적 인 성인, 지지적인 또래와 함께 무수한 반복연습을 한다.

※ 출처: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4). Enhancing and Practicing Executive Function Skills with Children from Infancy to Adolescenc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연구결과들이 취학연령과 발달결과, 그리고 이것이 이후 아동의 학교 적응이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방향은 비교적 일관적이다. OECD 각국은 자국의 아동이 영유아기에 질 높은 놀이중심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고 있는 취학 전 기관에서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ECEC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영유아가 취학하기까지 자신의 발달속도에 맞추어 성장하고 학교에 입학하여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 감수성 있는 아동친화적 전이<sup>5)</sup> 정책의 필요

근래 OECD 각국은 대부분의 유아가 취학 전 기관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초등학교 첫 입학과정이 아동친화적이지 못할 때 아동에게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초등 전이(transition)가 보다 아동친화적, 가족친화적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유초연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다.

OECD가 2017년 발간한 Start Strong V<sup>6)</sup>에서는 아동의 초등전이에 대해 다음과 같

5) 전이(transition. 성인의 입장에서는 연계라 번역)는 아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 교육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변화 과정(change process)”이라 정의한다. 여기에는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가 모두 포함된다. **수평적 전이(Horizontal transitions)**는 가령, 아동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취학 전 기관 혹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센터로 오가는 것이다. **수직적 전이(Vertical transitions)**는 가령, 연령이 바뀌어 ECEC 기관에서 학교와 같은 다른 교육체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OECD(2017). Start Strong V.

6) <https://www.oecd.org/publications/starting-strong-v-9789264276253-en.htm>

이 말하고 있다. 아동은 일생동안 여러 번의 전이를 경험하지만, ECEC 마지막 해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특히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한 아동의 이후 학교생활을 위한 방향과 기조(…the tone and direction of a child’s school career)”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아동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으로는 정서사회 관계(친구를 사귀어 줄 알고, 의지할 누군가가 있는 것), 초기 학습 기술(어떻게 배우는지 아는 것, 문해, 수리능력), 학교 규칙과 과정(무엇이 적절한 행동이고 무엇이 부적절한 행동인지 파악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학급 내 과정(학급이 어떤 곳인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정서(어떻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는 것, 어떻게 무서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 등이 포함된다. 부모와 교사는, 학교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아동이 이런 이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아동이 학교에서 보다 순조롭고 행복한 출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은 이후의 학습, 건강, 복지의 초석이 된다. 아동은 이전 단계까지 쌓아온 역량 위에 새로운 역량을 더해가는 연속선상에서 발달해간다. 영유아기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는 아동의 뇌 구조 형성뿐 아니라 발달의 여러 측면(즉, 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전이과정에서 발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학습경험이 이전 학습경험과 발달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초 연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아동의 초기발달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주체로는 아동, 부모, ECEC 교직원, 초등학교 교사, 지역사회, ECEC 및 초기 발달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예를 들면, 건강전문가,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방과 후 학교 밖 서비스들)를 들 수 있다. 관련자들이 굳건하고, 반응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아동이 새로운 학습 환경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은 기대와 가치의 차이, 업무방식의 차이,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준비시킬 수 있는 역량의 차이, 연계 활동에 쏟을 시간과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 쉽다.

한편, 유아와 아동의 입장에서 전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취학 전 기관에서 학교로 입학하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루 중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있는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초등학교의 방과 후 시간을 어느 장소(들)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는 비단 이들의 학교 적응 뿐 아니라 전반적 성장과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OECD 각국에서 ECEC 정책(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대개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기간을 다루기도 하지만, ECEC의 대상이 되는 연령 범위는 역사적으로 0세부터 8세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는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에 교육과 돌봄 정책이 보다 총체적인 접근(a

7) - UNESCO는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period from birth to eight years old** is one of remarkable brain development for children and represents a crucial window of opportunity for education. UNESCO believe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that is truly inclusive is much more than just preparation for primary school.

holistic approach)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4. 마치며

올해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3년째 해이다. 이 시기 태어났거나 영유아기를 보낸 아동들은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여 언어발달의 어려움, 바깥 활동의 제한, 생일잔치나 가족 모임과 같은 이벤트가 주는 풍부한 생활경험의 부재 등과 같은 다각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OECD 각국은 생애 특정 시기에 수년간의 천재지변을 경험한 것이 아동의 이후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도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연령집단(age cohort)을 위한 보다 감수성 있는 증장기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It can be the foundation for emotional wellbeing and learning throughout life and one of the best investments a country can make as it promotes holistic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nd social cohesion. (<https://www.unesco.org/en/education/early-childhood>)

- 호주의 한 대학에서는 다음 연령을 포괄하는 교육학사학위를 취득케 하고 있다.  
Bachelor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and Care: 0-8 years) from the Univ. of Notredam  
([https://www.notredame.edu.au/\\_data/assets/pdf\\_file/0024/3984/BEdECEC\\_BA.pdf](https://www.notredame.edu.au/_data/assets/pdf_file/0024/3984/BEdECEC_BA.pdf))

# MEMO





## 토론

### 부모 I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마유미 (학부모)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교수 I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장)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교원 I

문복진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



토론

## 7세 의무교육 환영, 단 유아교육이어야!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7세 의무교육 환영, 단 유아교육이어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2018년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촉발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두둔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변인을 자처했다. 그 결과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무려 380여 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월의 일이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외에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 확충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리유치원이 밀집한 곳은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신도시이고, 이런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신도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공립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은 7세 의무교육 안에 찬성한다.

단, 조건이 있다.

### 1. 7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이어야

- 현행 누리과정 유지
-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 배치
- 교사 대 아동비율도 1:20 이하로 유지
- 교실 환경도 좌식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성(바닥 난방 등)

## 2. 초등 전일제 실시

- 1~6학년(7~12세) 15시(또는 16시) 동시 하교
- 한국 초등학교 연간 수업시간은 2020년 기준 679.7시간으로 OECD 평균 788.9시간보다 100시간 이상 적음. 주요국의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 종료시간은 오후 3시 이후인데 반해, 한국은 1시~1시30분으로 어린이집/유치원도 대부분 3~5시에 하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도 괴리가 큼.
-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현재 1~6학년 6개년 교육과정을 2~6학년 5개년으로 재편 가능

※ K-학년, 0학년이 아닌 1학년이어야 하는 이유 : 0학년 신설 시 교실 수급할 수 있나? 현재 1학년 교실을 좌식으로 리모델링하여 7세반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K-학년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 (K-학년제나 초등 전일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경선 후보 공약이기도 함)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이나 영국의 갭이어 같은 진로 탐색기간을 제도화할 수 있으며,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1년 앞당겨져도 큰 사회적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3. 초등 돌봄을 19시까지

- 초등 전일제 실시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늦출 수 있음.
- 공적 돌봄의 연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돌봄시간을 통일해야 함.
-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관내 초등학교 및 단설유치원(초등학교 부지 내 있으나 단설로 운영)은 전부 19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 어린이집 보육시간 : (종일반) 주중 07:30~19:30 (12시간), 토요일 07:30~15:30  
(맞춤반) 주중 09:00~15:00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참고로,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3-5-4-3 학제로 유치원 3년(5~7세), 초등학교 5년(8~12세), 중학교 4년(13~16세), 고등학교 3년(17~19세)이다. 2017년 마크롱 정부 교육개혁 이후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출처 : 대사관 산하 주프랑스한국교육원)

### 프랑스의 초등교육 (유치원 + 초등학교)

- 유치원(ecole maternelle)은 초등학교와 연계되어있으며 공립일 경우 무상교육 실시. 학생들이 처음 읽기를 접하는 유치원의 최고 학년(grande section)은 아주 중

요한 단계

- 초등학교(ecole elementaire/ecole primaire)는 총 5학년 CP, CE1, CE2, CM1, CM2로 구성. CP/CE2 는 매해 국가 학력 평가 대상
- 학교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5~12세) 일괄 16시, 방과 후 학교는 18~19시까지 운영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복지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여러 교사집단은 교사와 학교를 동일시하며,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라고 자의적으로 왜곡해왔다. 그러나 공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라면 교육이든 복지도 가림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사회적 합의를 통해 K-학년제가 도입되길 바란다.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로 이 논의를 종결시키기보다, K-학년제 도입을 위한 대 토론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

MEMO





토론

혼란 속에 내 던져진 부모와 유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마유미  
학부모

## 혼란 속에 내 던져진 부모와 유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마유미

학부모

본 토론자는 각 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만 5세 취학이 부절적인 이유에 매우 동의하는 바이며, 본 토론에 초등학교 1학년의 부모로서 임하고자 한다.

국가의 정책은 우리의 사회와 시대에서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조기 입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부모와 유아들은 혼란 속에 내던져졌다.

아래의 글은 교육부 보도 자료(2022. 7. 29)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부 보도 자료(2022. 7. 29)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며, 여러 의문이 들었다. ‘**질 높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명시한 교육의 ‘**적기**’가 맞는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의 도달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이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과 문제들을 부모로 마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적기 교육인가? 사교육으로 흘러 갈 조기 교육인가?

2019 개정누리과정에 따르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놀이를 통합 배움**’이며 만 5세 유아에게는 이것이 적기 교육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만 5세

가 되면 이 시기를 학교준비기로 생각하고 인지 교육을 시키고, 사교육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준비기는 더 하향될 것이고, 사교육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만 5세 유아들은 놀이를 통한 배움의 적기 교육을 뒤로한 채, 교육부가 말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만 4세 유아들은 학교 교육의 준비기로 사교육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명시한 적기 교육은 사교육으로 흘러 갈 조기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 2. 질 높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가?

‘질 높은 교육,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표현으로 조기 입학을 주장하는 식은 마치 질 높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으로 비취진다. 이는 유아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 절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들을 신뢰하고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만 5세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아 교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마련된 유아교육정책의 추진을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바에 동의한다.

## 3.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은 돌봄 공백의 대상이 되는가?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돌봄이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모든 맞벌이 부모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다.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많고, 순위가 낮을 경우 추첨을 하여 뽑는 형식이다. 추첨에서 떨어져 돌봄 교실에 갈 수 없는 1학년 아이들은 1~2시에 하교하여 부모들이 퇴근하고 오는 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사교육으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돌봄 공백은 하교 후 뿐만이 아니다. 방학, 학교장의 재량으로 쉬는 재량휴업일, 급식 없이 일찍 하교하는 방학하는 날, 안전의 문제로 정해져 있는 등교 시간 등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들이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상은 1년 먼저 돌봄 공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모들이 제시하는 돌봄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1, 2학년의 돌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5세

유아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11~12시간이 된다. 돌봄 공백을 메우게 되더라도 유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수성 있는 아동친화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완정 교수님의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 또한 돌봄이 국가의 완전 책임 실현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책임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과 돌봄 문제 외에도 연령에 따른 학습 격차, 경쟁, 발달 차로 인한 적응 등의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부모가 아닌 바로 ‘유아’라는 것이다.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유아’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미명하에 유아들의 권리를 침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어른들의 집단성과 집단성이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팽팽한 적대감 사이에 유아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릴 때 자신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자신에게 물어보라. 진정 1년 먼저 출발하여 지금에 먼저 도착하고 싶은가?”

## MEMO



토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절대 안 됩니다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절대 안 됩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느닷없는 폭탄 발언에 학부모들은 7일째 길 위에서 폭우와 폭염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즉흥적인 아이디어라기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교육감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초유의 사태에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그야말로 속대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만5세 초등 조기입학에 대해 아동의 출발선 상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첫째, 현재 만5세 이하 유아교육이 불공정하다는 것, 둘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불공정이 해소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두 가지 모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은 100%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누리과정으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 등 유아 대상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과 국공립·사립의 기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이려고 유아를 1년 일찍 강제로 초등학교로 만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교과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만 더 팽창하고 경쟁교육 대열에 1년 일찍 합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만5세가 인지 발달이 빨라서 초등 1학년 과정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1학년 교실을 한 번이라도 가 본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도 없는 무지한 교육부입니다. 만5세는 공부가 아닌 놀이와 쉼이 필요한 유아입니다. 교육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발달과 공감능력, 사회성, 생활 교육 등 전인적인 발달을 아동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골고루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문제입니다. 유아의 체격에 맞는 화장실, 책상, 급식실을 3년 동안 어떻게 초등학교에 갖춰놓겠다는 것인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표지판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놓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화장실과 급식실에 일일이 따라다니며 챙겨 줄 교사가 있는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 교사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상되는 문제가 이



렇게 많은데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5세 조기 취학을 제안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의 반대 서명은 4일 만에 20만 명을 달성했고 강득구 의원실이 주관한 설문조사는 13만 명 응답자 중 98%가 반대했습니다.

이는 결코 만5세 유아를 둘러싼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내 아이의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이기심때문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여기고 입직 연령을 앞당겨 산업 인력으로 투입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만5세 초등 조기입학은 3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해묵은 정책입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반대해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와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덮으려는 수단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습니다. 음주 운전과 자녀 생기부 논란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장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런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급하게 학부모들을 소집해서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치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휴가 중에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차관은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합니다. 대국민 설문이나 전문가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의도한 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공론화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공론화는 찬반 의견이 팽팽할 때 각각의 의견을 주장하는 측을 내세워 시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공론화에 부친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학원 일요일무제 등의 공론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요즘 저희 단체는 매일 전화에 시달립니다. 60~70대로 추정되는 분들이 '공짜로 교육시켜 준다는데 왜 반대하냐'고 항의합니다. 마치 만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 교육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두가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탓입니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가'입니다.

만5세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지금 당장 많이 놀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만5세 초등 조기취학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MEMO



토론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북유럽의 취학 연령 하향화에 대한 대응 사례

---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북유럽의 취학 연령 하향화에 대한 대응 사례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각종 기념행사들이 잇달아 개최되었으며,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구뽕’씨마저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며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 5세 조기입학 방안’이 급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발달권**’에는 ‘**교육받을 권리**’(28조 29조)와 더불어 ‘**놀이 권리**’(31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5세 조기입학을 막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신 주최측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분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sup>1)</sup> 아동 권리의 선진국인 북유럽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유럽에서는 아동기를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로 보지 않고,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가 해야 할 일과 원하는 일을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즐겁게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회가 닿는 한 ‘**아이답게**’ 지낼 수 있게끔 돕습니다. 북유럽의 아동중심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늦은 취학연령(만 7세)**’입니다. 이는 북유럽 아동들에게 유아기 동안 놀이를 하고, 성인들의 지나친 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 그들의 주변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주었습니다(한유미, 권정윤, 신미자 역, 2011).

이와 같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1980년대 들어와 학교 등록률 감소로 교사의 실직과 폐교의 위험이 감지되자, 재정부장관(Kjell Olof Feldt)에 의해 취학연령의 하향화(만 7세-> 만 6세)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유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며,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기의 종말**’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에 의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UNESCO, 2002).

1) 학교에 일찍 입학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연구 기반 증거는 없다. 이와 반대로 아동이 주도하는 자유놀이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문해수업을 만 5세와 만 7세에 시작한 아동을 비교한 뉴질랜드 연구에서 만 11세까지 두 집단의 읽기 능력은 차이가 없었지만, 만 5세에 시작한 아동이 읽기에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문장이해력도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업지향적인 프로그램에 비해서 놀이기반 학습을 토대로 하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을 일찍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옴을 나타낸다(김혜순, 공병호, 한유미, 장혜진, 이완정, 김연하 역,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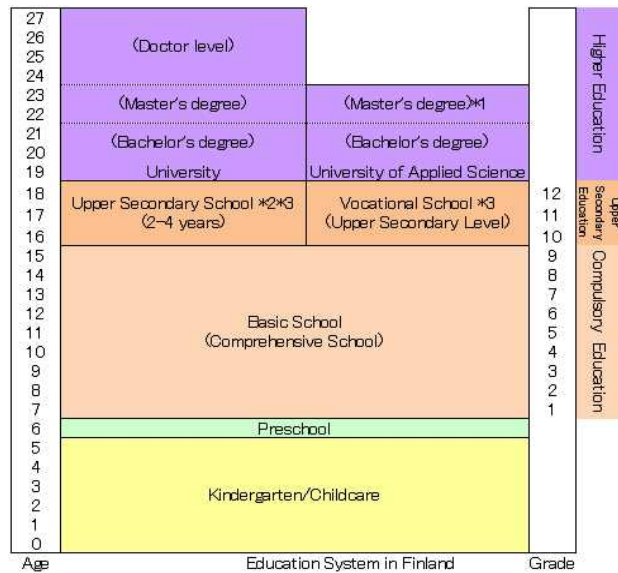
이에 장관은 스웨덴의 아동이나 학교 제도 모두 취학연령 하향화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결국 만 7세였던 취학연령을 만 6세로 낮추는 방안은 무산되고, 만 6세를 위한 ‘유아학급’이란 무상교육(2019년 이후 현재 의무교육)이 절충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한유미, 2010).

초등학교를 5년으로 축소한 미국 K-grade와 달리, 스웨덴의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은 초등학교 학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인용됩니다. 그 결과 북유럽 아동들은 유예된 유아기를 가지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유미, 2013). 나아가 유아교육기관(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은 좀 더 어린 아동을 위해 발달에 충실한 기관이 되고, 초등학교는 유아교육기관처럼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학령기 아동을 전인적 측면에서 돌보는 장소로 변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즉, 유아학급 도입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이 학교화(Schoolification)되기 보다는 학교가 유아교육화(Preschoolification)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아학급 도입 당시 그간 사회정책에서 높은 지위를 누려오던 유아교육이 기득권을 잃고, 교육 부문의 주변적인 요소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아학급 도입으로 인해 유아 1인당 투자되는 연간 비용이 유아교육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SEK 109,100→SEK 47,400), 이렇게 절감된 재정이 (만 5세 이하를 위한) 유아교육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Skolverket, 2009; 한유미, 2010). 이는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학생 감소나 국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조기입학을 도입해서는 안 됨을 시사합니다.

유아학급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내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된 **‘만 6세가 경험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유아학급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에 관한 Johansson(2002)의 연구에서 유아학급에서 자녀가 개별 욕구에 맞춘 자극을 받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특히 아들을 둔)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때보다 자녀가 더 많이 학습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유아교육기관과 유아학급을 300시간 관찰한 Häggblom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은 혼합연령에 맞추어 설계되었지만 유아학급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고, 두 기관 모두 복수의 방(room)을 갖고 있지만 유아학급은 방의 수가 적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는 교실 한 가운데에 옷/신발을 입고/신고 벗는 것을 돕는 벤치가 있었는데, 유아학급에서는 유아가 스스로 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이 사라졌습니다. 실외공간의 경우에도 유아학급에서는 종이 울리며 운동장에서 지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식당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가정(home)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유아학급에서는 다른 건물로 가서 다른 학급/학년의 아동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과정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유아학급에서는 글자와 숫자에 관한 연습을 많이 하

고, 교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아동은 이를 따라야 했고, 형식적 상호작용(자기 차례가 아니면 조용히 있고 손들고 답하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수준 평가에서도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유아학급은 과목중심, 기술중심의 교수나 학업성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며, 개별 유아의 흥미와 속도에 융통적으로 맞추기보다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고 했습니다(Kega, 2007; Samuelsson, 2006; 한유미 2010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스웨덴의 유아학급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초등교육’이라기보다 ‘**유아교육 활동(Preschool activity)**’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교육법상 의무교육체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웃 핀란드의 유아학급<sup>2)</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유아학급도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교보다 유아교육기관(Päiväkoti)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헬싱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핀란드의 유아학급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핀란드의 유아학급이 교육부의 관할과 기본교육법(Basic Education Act)의 적용을 받지만, 유아교육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유아교육(보육)법의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됩니다(곽노의, 2017; 한유미, 2013).



[그림 1] 핀란드의 교육제도

※ 출처: [https://www.childresearch.net/PROJECT/ECEC/europe/finland/pop\\_edu.html](https://www.childresearch.net/PROJECT/ECEC/europe/finland/pop_edu.html)

2) 만 5세 이하 유아를 위한 기관을 프리스쿨(preschool),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프리스쿨 클래스(preschool class)라고 하는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만 5세 이하 유아를 위한 기관을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프리스쿨(preschool)이라고 부른다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핀란드의 만 6세 아동을 위한 교육을 유아학급(preschool clas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우리는 북유럽의 유아학급 도입의 배경이 우리나라와 달랐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모두 일찍이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었고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립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양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양성과정이 애초(탁아소와 유치원이 공존하던 시기)부터 일원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종일제)과 다르게 반일제였던 유아학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마다 설치된 **레저타임센터**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만 5세 조기입학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과 후 보육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다함께 돌봄’(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질적(예, 물리적 거리)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점(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2)은 북유럽의 레저타임센터와 같이 초등학교 공간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 보육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들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팀(대개 교실 당 3명)**을 이루어 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아학급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그리고 레저타임센터가 만나는 곳으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뤄 작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유아교사들과 레저타임 교육자들(Leisure-time pedagogues)은 초등교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아학급에서 일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가정보육사도 작업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스웨덴 정부는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레저타임 교육자를 통합적으로 양성하는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학 시가 아니라 졸업 시에 전공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유아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통합적 교사양성 제도가 폐지되고, 2010년 유아교육, 초등교육, 각과교육(중등), 직업교육 등 4가지 학위 제도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공병호, 최인화, 한유미, 2019; 한유미, 공병호, 2019). 이 또한 만 5세 조기입학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요하는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완정 교수와 함께 **‘유초연계(幼初連繫)’**에 관한 OECD(2017) 보고서(Start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한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준비도(Readiness)”라는 용어는 ‘아동을 학교에 준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차이가 클수록 아동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아동을 최대한 일찍 초등학교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화(Schoolification)’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학교화란 초등학교에나 적합한 것들을 유아교육에 도입하여 나타나는 변화 즉, 초등학교의 교수방법을 유아교육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낙수효과*



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높은 교직원-아동 비율, 교사주도적인 교수법, 학문적 내용 강조, 놀이 시간 감소, 아동에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국가에서 준비도를 '학교생활을 위한 아동의 준비'가 아니라 '**아동을 위한 학교의 준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 공병호, 최인화, 한유미(2019).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서울시 용역 과제(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134-01).
- 곽노의(2017). 핀란드의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 초등교육**, 28(1). 329-341.
- 김혜순, 공병호, 한유미, 장혜진, 이완정, 김연하 역(2018). **Starting Strong V 영유아교육·보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연계**.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용역 과제(OECD(2017) Start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발간등록번호 12-1071800-000038-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ISSUE PAPER.
- 한유미(2010). 스웨덴의 유아학급 설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취학연령 하향화 대처 방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9(4).1-17.
- 한유미(2013).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 **스칸디나비아 연구**, 14, 181-214.
- 한유미, 공병호(2019). 스웨덴의 ECEC 교직원 관련 정책과 현황. **스칸디나비아연구**, 24. 267-294.
- 한유미, 권정윤, 신미자 역(2011). **북유럽의 아동기와 유아교육: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철학 연구 정책 실제**. 고양시: 한권(J. Einarsdottir & J. T. Wagner.(Eds.) Nordic Childhoods And Early Education: Philosoph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 Skolverket(2009b). *Costs: National Level, Part 3*. Stockholm: Skolverket.
- UNESCO(2002). *Integrating Early Childhood into Education: The Case of Sweden.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no. 3*. Paris: UNESCO.

## MEMO



토론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개별 존재의 행복'과  
'함께하는 연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만 5세 취학안 폐지하고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교육 실현하라!

---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개별 존재의 행복’과  
‘함께하는 연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만 5세 취학안 폐지하고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교육 실현하라!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지난 7월 29일 만 5세 조기 취학안이 나온 이후 교육부장관, 차관,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통해 해당 안이 줄속으로 추진된 비전문적인 정책안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한 만 5세 조기 취학안에 대한 반대 근거와 맥을 함께 하며, 어제와 오늘의 국회 토론회를 비롯 수많은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의 성명과 토론을 통해 반복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듣지 않는 불통 정책 때문이다. 이미 협의와 논의를 끝낸 만 5세 취학 반대 사유에 귀 기울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안을 다시 내어 주길 간절히 고대한다.

1.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1) 7월 30일 YTN24 인터뷰 박순애교육부장관 발언

-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 조기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2) 8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장상운 교육부 차관 발언

-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

: 유아교육은 이미 공교육의 시스템 안에 진입. 2012년 누리과정을 통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지원. 그러나 불충분한 재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등지원.

: 작년 한 해 동안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5차례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체제개편하여 기관에 따른 차별 없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노력.

## 2.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 1) 7월 30일 YTN24 인터뷰 박순애교육부장관 발언

- 자격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같이 **전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 2) 8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

- 그다음에 혹시라도 뒤쳐지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초중등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그걸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래서 낮추더라도 충분히 돌봄이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

-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불충분한 예산 및 부처 논란으로 반복되었던 보육대란 상황
- : 재원유아수에 따라 담임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현 어린이집 구조
- : 유보통합 논의는 교사양성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자격기준 조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 혹은 유사한 교사복리후생 확보 논의도 포함

## 3. 초등학교를 활용한 교육과 돌봄의 통합

### 1)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교육부 장관 발언

-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 : 초등학교의 물리적 여건은 현재 초등 1학년에게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만 6세인 초등 1학년 아동의 공간지각력 및 신체 발달에 비해 화장실, 세면대, 계단, 급식실, 출입문, 운동장 등의 물리적 구조가 고학년 아동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돌봄의 물리적 상황이 불가능.
- :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오후 12시면 일과가 끝나 추가적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돌봄이 가능.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 학교 내 돌봄이 어려운 상황. 가정돌봄 및 학교돌봄이 어려운 아동들 사교육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
- : 현재의 초등 교육과 돌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이 더욱 필요한 만 5세

[토론]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개별 존재의 행복'과 '함께하는 연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만 5세 취학안 폐지하고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교육 실현하라!

를 조기 입학시키는 것은 불가.

#### 4. 인지성장의 발달

##### 1) 7월 30일 YTN24 인터뷰 박순애교육부장관 발언

-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고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조기 입학율, 학령 나이 하향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2) 8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장상운 교육부 차관 발언

-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굉장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가 있어서 **1년을 낮추더라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

- : 유아발달은 인지적 관점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
- : 여러발달이론을 통해 영유아기는 감각교육,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신뢰로운 돌봄환경에서 긍정적 정서와 사회성을 발달
- : 초등교육은 교과지식 습득에 방점. 대표적 한글책임교육. 초등교육과정은 학습시간과 쉬는 시간이 구분되어 책상에 앉아 40분 집중하여 학습. 유아의 욕구지연, 감정조절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에서 가능한 접근.
- : 연령이 어릴수록 발달기준은 연 수가 아닌 월수로 접근. 대소변 처리조차 개별유아 발달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돌봄이 약화된 초등교육을 하향화하기 어려움.

#### 5.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1)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교육부 장관 발언

-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

##### 2) 8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장상운 교육부 차관 발언

- 학부모님들께는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겠다**
- 초등에 들어가는 우리가 돌봄을 충분히 양질의 돌봄을 제공 학교 단계에서 제공을 하면 **사교육비도 덜어드리고**

##### 3) 8월 3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교육부 학제 개편안 찬성 입장

-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 부모의 경력 단절 대부분은 자녀의 초등 1학년 입학 기점으로 시작. 어린 연령일 수록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초등 돌봄교실은 한정적.
- : 가정돌봄 및 초등돌봄이 어려운 경우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상황.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교육의 질적 차이 심화.
- :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라 만4세 조기취학이 허용되어 있으나 조기취학률은 낮은 상황. 선택 가능한 만 5세 조기 취학을 의무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기본 선택권을 부정하는 행위

## 6. 경제논리

### 1) 8월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

-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소중한 인재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가 지금 있는 **경제 규모나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 초등 단계에서부터의 교육개혁**이 되게 중요합니다.
-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이런 장점**

- :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 유·아동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인구 육성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비교육성.
- : IT 등 신산업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현 교육시스템은 엘리트 중심의 교육적 관점이며 인간을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
- : 고등교육 자체도 기술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기조를 잡은 상황에서 유아 한명 한명의 다양한 특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부재.
- : 현재에도 휴학, 졸업유예, 대학원 진학 등의 경로를 통해 취업 시장에 나오는 시기를 늦추는 20대. 현행 법률상 청소년을 성인으로 만들어 노동인력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장점이 될 수 없음.
- : 국가 예산 투입하는 공교육 기간 단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

## 7. 절차상 문제

### 1)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교육부 장관 발언

-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토론]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개별 존재의 행복'과 '함께하는 연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만 5세 취학안 폐지하고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교육 실현하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사려 깊게 학부모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노력하겠다.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공론화 걸쳐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

- : 만 5세취학안이 나온 지 4일 만에 반대서명에 이십만명 참여. 성격과 이해관계가 다양한 44개 단체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토론회가 진행되는 지금도 5일째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집회를 진행
- : 이십만이 넘는 서명에 참여한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매일 만 5세 취학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44개 단체가 이미 국민의 의견이며 심판.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표현은 어불성설.

## 8. 제시한 대안

### 1)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교육부 장관 발언

- 정책 추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다. 학제 개편은 하나의 수단

- : 작년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5차례 토론회를 통해 이미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안이 도출
- :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정권에 따라 원점화되는 교육 정책안은 국민에 대한 기만
- :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유아학교체제 개편 강력 촉구

만 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은 장관 및 대통령 발언 이후 4일 만에 이십만명이 넘었고, 서로의 입장차가 다양한 44개 영유아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별 뜨거운 날에도 비 쏟아지던 날에도 5일째 정책안 철회를 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과 차관과 경기교육감은 여전히 국민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간다. 이십만명 넘는 서명이, 휴가도 반납한 44개 영유아관련 단체의 뜨거운 집회가 교육부와 정부에 건네는 말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만 5세 조기입학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들의 경제논리일 뿐이라는 학부모, 교사, 학계,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묵살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다.

**만 5세 조기입학 당장 철회하고,  
유보통합된 유아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라!**

[토론]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개별 존재의 행복'과 '함께하는 연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  
만 5세 취학안 폐지하고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출발점 평등 교육 실현하라!

## MEMO



토론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라본 5세 초등 입학의 문제점 토론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라본 5세 초등 입학의 문제점 토론

박소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여기는 정책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일 년 계획의 곡식, 십 년 계획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한 사람의 평생이 백 년이므로 평생 계획의 사람을 심는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는 만 3-5세의 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한 교육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5세 조기 입학 추진으로 그러한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선다. 인간의 행동은 외현적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신체감각, 행동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감정이 관여하는 이치와 같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절해도 지나침이 없는 다수(multiplicity)의 다양성(diversity)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획일화는 관리가 편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기도 하다.

이미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발달에 적합하지 않고, 유아에게 놀이는 배움이자 학습이므로 충분히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동이 성인과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2013)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놀이는 발달적 측면을 넘어 권리적 측면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유아의 놀 권리' 인식과 실천은 유아 놀이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 충분히 보장하였을 때의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조정아, 2021).

모든 유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도 놀이하듯 배울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교육의 차원에서 유치원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의 이념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여 제시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역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별법 지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과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정원 외 배치로 인해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모와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의무교육대상자가 되었다. 장애인들에게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는다라는 것은 교육의 전제조건이 아닌 '통합교육'이라는 별도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지만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5세 조기 입학의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 II.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 1. 근거와 동향

#### 1) 국제 기조

UN(2006)의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장애로 인해 일반교육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교육, 의무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육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완전한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업 및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개인 지원 조치들이 제공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1)에서 발간한 「장애에 대한 전 세계 보고서」에서 통합(inclusion)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이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있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교육으로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UN(2009)에서 발표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조항의 핵심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 2) 국내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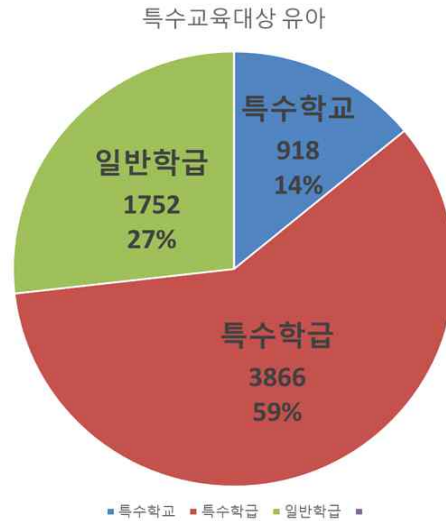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전제로 특수교육법 적용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이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3~5세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특수학교 유치원·유아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상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2021년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교육 배치 환경별 특수교육대상유아수이다.



〈표 1〉 교육 배치 환경별 특수교육대상유아수

배치환경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특수학급)	유치원(일반학급)
2018	944	3,058	1,628
2019	929	3,422	1,638
2020	918	3,866	1,752
2021	927	4,444	1,826

### 3)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환경 현황(2020 특수교육통계)



[그림 1] 교육기관(통합 대 분리 배치가 86:14%)

## 2. 의무교육권 보장을 위한 선결 조건

교육부(1997)에서는 2000년대 특수교육의 과제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에 의한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김태문, 2000). 현행 헌법에서 초등교육만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교육도 일부라도 의무화하라는 것이 헌법적 명령이므로(정재황, 2014), 현대 공교육체제에서 의무성과 무상성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체제로 인정받고 있다(김민희, 2017). 의무교육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최종환, 2017).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공적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교육 제공 및 규제의 인정범위에서 필수적 지원(재정상) 의미로서 국·공·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등록금, 급식, 교과서,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교사 채용 등 모든 교육행정 영역에서 인정된다(김재

선, 2016). 의무교육은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아동이 지닌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고(김용일, 1970), 국가적으로 학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일정기간 동안 아동이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박종근, 2016).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권 요소이기도 하면서 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최병택, 2016). 그러므로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크게 취학의 의무, 학교설치의 의무, 교육보장의 의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공병호, 2018),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하는 국가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후 십오년이 지난 현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은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 현장의 장애 인식의 장벽으로 인한 지원 부족과 관련이 있다.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이해 및 태도를 개선하고 긍정적 이해와 수용태도를 길러주는 일은 연령이 어릴수록, 시기가 빠를수록 좋으며(이정화, 2008),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유·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중점 과제로 역점을 두고 있다(정희섭, 2019).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의무 유·무 또는 면제 조항의 객관적 시스템 부재 및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연령 장애유아가 증가하는 문제의 경우 최소위험가설 기준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학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박유정, 이숙정, 2018) 발달에 적합한 생활 경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분리’나 ‘구별’교육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노기호, 2014). 최소위험가정에서도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면, 학생에게 최소한의 위험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정에 기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보다 다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Donnellan, 1984). 예를 들면 첫째, 또래와의 통합에서 분리된 교육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통합교육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가정이 덜 위험하다. 둘째, 일대일이나 동질환경(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자료가 없는 한 이질집단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셋째, 학생이 인위적 자료나 학급을 통해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한 자연스러운 환경과 자료로 교육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넷째, 특정한 교사나 지원인력을 학생 한명에게 배정하는 실수로 일대일 교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는 한 하루 중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배워야 하며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비율로 구성된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 참여해야 덜 위험하다. 다섯째,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중도(重度)장애학생이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근거가 없는 한 발달에 적절한 교육과정(경험)에 노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의 능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미래를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정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편이 덜 위험하다. 일곱째, 학

생에게 가르쳤다는 것만으로 기술을 일반화하였다는 추측을 하지 말고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생이 배운 것을 시도하고 시험하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선결 조건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의무교육권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의 사각

2021년 국가통계(KOSIS)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수는 8,660교이고 학급수는 33,381개이나 2021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001교이고 특수학급수는 1,228개이며,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은 1,298교이고 일반학급수는 1,641개이다.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들이 대체로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하였을 때,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1,138명에서 4,444명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수 305교에서 1,001교로, 특수학급 305개 학급에서 1,228학급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정원 내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수는 전국 유치원수 대비 약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1순위로 집 근처에 입학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했거나, 2순위로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싶어서 선택한 경우, 3순위로 어린이집은 오랜 시간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어서라고 하였다(박소영, 백종남, 홍사훈, 이정운, 백상수, 2020). 또한 국가통계포털에서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2019.08.09.)는 집과의 거리가 가장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야 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다닌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실행 요건으로 교육부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최우선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에 특수교사 배치, 통합교육에서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통합교육의 확대,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장애인식 개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박소영 외, 2020).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교사 배치 확대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의 사각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부모 밀착형 의무교육 요구 파악,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4. 5세 초등 입학으로 예견되는 어려움

##### 1) 모든 유아에게 예견되는 어려움

만 5세 유아 중 84%가 취학 전 사교육을 경험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아의 평균 이용 프로그램 수와 월 비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놀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에서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학제로 포함시키기 보다 예비 부모시기부터 '부모됨 교육'을 통해 부모가 되기 이전을 준비하고, 유아기 부모들에게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과후교육과 양질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 이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의 선택권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적은 초등 조기 입학을 강행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 2)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예견되는 어려움

###### (1) 학제개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 연한 감축

현행 만3세~18세의 의무교육이 만3세~17세로 하향되어 현재보다 의무교육 연한 1년 감축.

###### (2)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증가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22.04.29. 자료갱신일 기준)에 의하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소속된 과연령의 6-12세 장애아동이 2,484명으로 장애아보육기관의 23%가 입학유예 대상자로 추정됨. 이미 취학 유예 비율이 높은데 초등 입학 시기를 앞당기면 학교 적응의 부담감으로 오히려 취학 유예를 방조하고 취학 유예 기간을 장기화 시킬 우려가 있음.

###### (3) 조기중재 및 교육 지연

장애유아의 입증된 조기중재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기 초등 입학으로 인해 자녀가 초등 진학 준비가 되면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 증가로 조기중재와 교육의 민감기와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됨.

###### (4) 사교육 치료지원비 증가

학교 입학 전 학습 준비도 향상을 위해 사교육 치료지원 의존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5) 돌봄과 방과후(일반/특수) 시간 증가 및 학부모 부담 가중 우려

현재도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돌봄이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이 증가함.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는 유아 의무교육 실행조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박소영 외, 2020).

(6) 장애인 취업률 감소 우려

현행 의무교육 기간 이후 전공과의 2년간 무상교육 기간이 있음에도 낮은 장애인식에 의한 고용 기피와 저조한 취업률이 의무교육 연한 감축에 의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음.

(7) 특수학급 신증설 거부 증가 우려

현재 특수학급 신증설을 거부하는 사유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5세 초등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학급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이면서도 현재와 같이 교육 배치에 있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음. 의무교육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집 앞 유치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과 같이 시도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함.

### III. 마치며

국내 최초 통합교육 적용 실험모형이던 국립통합유치원에서 만 3, 4, 5세 각반에 비장애유아 15명과 특수교육대상유아 4명이 한 반으로 구성되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담임제로 협력교수를 하며 학급을 운영하던 특수교사 시절 통합학급인 우리 반에는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기 드라마 ‘우영우’처럼 아스퍼저장애를 가진 유아,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다소 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이 있었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유아를 누구도 표찰(labeling)하지 않고 함께 유치원 생활을 하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는 어머니께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예측하였지만 아스퍼저장애로 진단 받았던 5세 유아와 조기의 지나친 사교육 스트레스로 정수리 부분의 탈모가 심했던 4세 유아였다. 그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밝은 미소를 보일 때 부모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당시의 비장애유아의 어머니들은 통합유치원에서 부모님들끼리 형님과 동생하며 어울리던 열린 장애 감수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인근 유치원의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서 단절되었던 경력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한편 21세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이나 국립기관마저 구성원의 극심한 님비 현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요원하다. 유초·중등의 일반학교를 지을 때는 허락을 구하지 않지만, 특수학교를 지을 때는 혜택을 제시하라고 주저 없이 요구하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은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가정하며 자신을 완벽한 실존으로 판단한다. 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요구 중이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를 보내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름’을 인정하는 비균질한(Heterogeneous) 집단이 훨씬 생존력이 높다고 한다(매일경제 2015.01.23. 04:06:02.). 코로나 시국과 같이 예측 불허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구성원의 적응력이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 지수가 6년 연속 최하위이면서도(이성아, 2018) 유치원에서 놀이만 하고 학습을 하지 않으니 학교로 보내서 조기에 초등학교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공자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어른들도 놀고, 놀 줄 알며 놀잇감이 있어 키덜트족(kidult)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노인들을 포함하여 성인들도 기호와 수집에 의한 블럭, 어른이 동화, 키템 등의 굿즈(goods)를 소장하고 취미생활을 즐긴다. 놀이의 담론은 유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 트기 놀이, 좋았던 어린 시절,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적 기제이다. 이처럼 어른들도 놀이를 하지만 어른들조차 놀이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어린 시절 놀이에 몰두했던 에너지는 학령기 학업에 전념하는 원천이 되고, 다양한 경험은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 이미 통찰한 바이다. 성찰이 없는 어른들은 유아의 발달에는 단계가 정해져 있어 연령에 적합한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면 미숙한 인간이며 결함이 있는 존재로 낙인찍는다. 심지어 지능으로만 학업성취를 판단하거나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라며 어른이 위안 삼는 것은 학생을 더 노력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공부만 잘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감성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동정, 공감에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요소 중 정서에 양심, 공감, 이타성이 있고 인지는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판단력), 공정성으로 행동적 요소가 연결되어 미래 인생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인지에서도 사회인지와 타인 이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사려성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기 조절력이 높을수록 타인도 잘 배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아 주도의 놀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평균의 함정’으로 인간을 가르고 개개인성을 무시하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중을 간과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토드 로즈(2018)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경로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국내 조기 취학과 선택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음에도 5세 전원 초등 입학을 해야 한다는 획일화와 평균이라는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인간관과 교육철학에서 태동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어른들도 유아를 국가의 산업 인력으로만 보는 수단과 수동적 대상으로 국한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역지사지 성찰을 권한다. 아가와 사와코(2013)는 인간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듣는데 45%로 가장 많이 할애하지만, 정작 훈련시간은 0%라고 하며 듣기에 들이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일단 들어야 위험이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2013)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저서에서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였고, 고집은 편견을 부르고, 그 편견은 또다시 고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일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듯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김지수, 이어령, 2021)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사잇꾼’, ‘리더지만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공병호 (2018). 일본의 의무교육 기회확보에 관한 정책 동향.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
- 교육부 (2012).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20).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김민희 (2017). 주요국 의무교육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579-588.
- 김용일 (1970). 사적 견지에서 본 의무교육의 이론과 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0, 77-98.
- 김재선 (2016).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최근 미국 의무교육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46, 275-303.
- 김지수, 이어령 (2021).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열림원.
- 김태문 (2000).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취학 지원 체제 개선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35, 257-281.
- 노기호 (2014).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15, 89-128.
- 매일경제 (2015.01.23.).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5/01/74040/>
- 박소영 외(2020). **2019 개정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1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박소영, 백종남, 홍사훈, 이정운, 백상수 (2020). 유아기 의무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의 지원 요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249-267.
- 박유정, 이숙정 (2018). 장애전문어린이집 과연령아동 보육활동 실태 및 교사요구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2), 69-91.
- 아가와 사와코 (2013). **듣는 힘(말없이 사람을 움직인다)**. 흐름출판.
- 육아정책연구소 (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연구보고-2016-13)**.
- 이성아 (2018). **한국 아동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 한국·영국 놀이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8).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및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창원.
- 정재황 (2014).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0(3), 119-163.
- 정희섭 (2019). '장애공감'의 조건과 교육실천 원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4),



285-307.

조정아 (2021). **유아 놀 권리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택 (2016). 해방 이후 의무 교육 요구와 정책의 전개 방향. **대구사학**, 125, 209-241.

최종환 (20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7(4), 140-160.

토드 로즈 (2018). **평균의 종말**. 21세기 북스.

히로나카 헤이스케 (2013). **학문의 즐거움**. 김영사.

Donnellan, A. M. (1984). The criterion of the least dangerous assumption. *Behavioral Disorders*, 9(2), 141-150.

<https://doi.org/10.1177/01987429840090020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 17(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 31). Adopt ed by the committee at its sixty-second session(14 January-1 February 2013).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is, France

UNESCO(2009).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children's needs in inclusive classroom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43/124394e.pdf>, accessed 13 August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MEMO



토론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 개편은 철회해야 합니다.

---

문복진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 놀이를 배우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 개편은 철회해야 합니다.

문복진

서울경동유치원 원장

교육부는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5세 유아가 초등학교로 1년 일찍 조기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정책이 어떤 이론과 근거로 내세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3분의 발제문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5세 유아는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유아·놀이중심을 강조합니다. 하루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하며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2019년에 개정하고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22년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정착되는 시기에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4세부터 초등학교 준비시기로 생각하여 사교육으로 유아를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입니다.** 5세에게 초등학교 1학년의 인지 중심의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40분씩 책상에 앉아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 수준의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5세 유아는 인지적 학습 측면의 강조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 사회성 발달, 정서 및 언어적 발달의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대소변을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도 교사의 정성스러운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유아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아가 5세에 조기입학하면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시지요? 유아는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놀이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데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유아를 인격체가 아닌 경제적 수단, 미래의 산업을 생산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논리라면 5세 유아의 25% 혹은 10%(오락가락하는 정책 일환) 유아가 6세 형들과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왜 저는 초등학교에 형들과 같이 가야 해요?’라는 질문에 ‘응, 너는 미래의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해’라고 대답해야 한다면 유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아·학부모·교원의 눈물겨운 희생이 따르는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는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와 심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미 유치원은 질 높은 교육 및 돌봄을 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한 연중 운영으로 (07:00~20:00)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5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발달에 맞지 않은 초등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돌봄을 원하는 모든 학생이 돌봄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에 보내는 학부모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챙겨주어야 하고 부족한 돌봄서비스로 인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5세 유아를 준비 없는 초등학교 돌봄에 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들이 학원을 전전하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넷째,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좋다는 마음으로 유아교육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유아관련 철학과 유아의 배움을 위한 교수법 등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어 유치원 현장에 나갑니다. 초·중등교사와 다른 어려운 환경 및 대우 속에서 오직 유아만을 위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며 지금까지 100년을 넘게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5세를 돌보고 가르치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초등교사 양성과정은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다르므로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학교 부적응의 사태가 불거질 것이며 유아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안 된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정책은 발로 뛰고 국민을 찾아다녀야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이 될 것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전 정부 등에서 폐기된 5세 조기입학 정책, 38개 OECD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가 6세 초등학교 취학을 선택하고 오직 4개국만 선택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에서 정책화하려 하나요? 교육부는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공교육으로의 영유아학교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유아·학부모·교원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가 성장하는 질 높은 교육이 될 것이며 진정한 격차 해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MEMO





토론

유아교육정책은 아이들의 삶에 근거해야 한다.

---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 유아교육정책은 아이들의 삶에 근거해야 한다.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최근 뉴스 메인에 만 5세 초등입학관련 뉴스가 중요이슈로 계속 오르내린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만 5세의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보도가 된 일이 있었는가? 내 기억으론 20여 년 전부터 동일한 이슈가 제기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책의 배경에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산업인력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는 정당한가?

이번 만 5세 조기입학 이슈와 관련해서 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다.  
우리사회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가?

만 5세 조기입학은 단지 만 5세가 초등교육을 받는다 유아교육을 받는다를 떠나 전체 학제개편의 문제임에도 만 5세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조기취학은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입장에서 조기취학은 어떤 문제인가? 이 두 가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음들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만 5세 조기입학을 제기하는 중요 근거가 저출산과 산업인력의 감소에 대한 대응이다. 즉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이들을 속성재배해서 사회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태어나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할 것인가 보다는 사회를 유지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수정되지 않는 한 과연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미 태어난 '나'조차 존중받고 보호받고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 사회에 누가 '부모되기'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아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킨다고 해서 유아가 아닌 아이로 조기성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6세 이후 초등입학을 하는 이유도 유아의 인지발달이나 사회정서발달의 보편적인 수준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석실(2010)은 지금의 만 5세는 예전의 만 5세와 다르다는 전혀 근거 없는 논리로 유아들을 준비 없이 초등학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충분히 발달적 성숙을 이룬 후에 사회적, 학문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체계적인 형식교육을 시

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09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같은 학년의 ‘빠른 생’이라는 용어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초등입학을 3월 1일 기준 만 6세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학년에 출생연도가 다른 1,2월생 아이들이 입학하던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권동택(2008)에 의하면 조기 입학의 경우는 교육개혁위원회(1995)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에 따라 1996년 3월 입학생부터 시작된 이후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나 조기 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취학유예 및 과령 입학 아동의 경우는 최근부터는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렇게 1, 2월생들의 취학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만 6세의 기준일이 입학일인 3월 1일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겨우 10여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만 5세 조기입학을 제안하는 것은 7-80년대부터 잘못된 출산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유아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인 것이다. 이원영(2006)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안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본격적인 학교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인 유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갈 역량을 키우는 게 교육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정책과 학제 개편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홍신기 외(2010)는 첫째, 학제의 이념적 준거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제도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철학에 관한 것으로, 교육의 목적성(educational goal), 교육의 평등성(equality),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의 본질, 아동발달, 학습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학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동택(2008)에 의하면 초등교육의 본질적 측면은 아동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등을 기반으로 한 인격체로서의 전인적인 발달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아기에는 아동기와 다른 다양한 발달 욕구와 개별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의무교육법을 적용한 강제 취학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도 만 5세 조기취학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자녀의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만 1,789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이재희 외, 2018).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에도 이런 상황인데 초등취학연령을 낮추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한 이윤경 외(2007)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입학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사회성발달)과 학교생활

에의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존중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유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입학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 부적절한 학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지금도 만 6세 초등입학도 어렵다하며 취학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만 5세 조기입학 발표를 앞두고 발달장애 부모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져 보았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은 첫째, 당연히 1년 이상 유예할 수밖에 없고, 둘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입학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셋째, 발달장애아동들의 경우는 최대한 제도권 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공교육의 기간을 더 길게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이 기간이 단축됨으로서 가족의 양육과 돌봄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등이었다.

이미 이병래(2010)는 ‘만 5세아 초등학교 의무취학’ 방안에 대하여 첫째, 무엇보다도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만 5세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게 되어 조기 취학연령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유아에 대한 인권침해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둘째, 초등학교 취학 유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만 5세 조기입학은 유아들 개인적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선택이다. 1년 더 빨리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숫자에 대한 기대일 뿐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되지 못한다.

대학입시가 아닌 교육정책이 이렇게 온 나라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난 오히려 이 기회에 초등입학을 일 년 앞당기는가 아닌가가 아닌, 우리사회에서 한 사람이 출생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이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사회가 그 한사람, 생명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 행복한 사회가 되고, 부모되기가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참고문헌

- 권동택(2008). 초등학교 취학 연령 및 유예 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3), 1-25.
- 이병래(2010). 만 5세아 초등학교 의무교육 논쟁의 타당성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2), 1-25.
- 이원영(2006). 우리나라 학제 개편 논의과정과 유아교육의 위상. **유아교육학논집**, 10(3), 123-148.
- 이윤경, 박은혜, 전홍주(2007).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적절한 입학연령 및 학제개편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7(2), 211-233.
- 이재희, 김근진(2018).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은?. **육아정책 Brief**, 66(0), 1-4.
- 한석실(2010). 유아교육학 입장에서 본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입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155-185.
- 홍신기, 윤순중(2010). 초등학교의 기본학제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27-254.

MEMO



토론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그건 안 되는 거야.

---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그건 안 되는 거야.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장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동네산책을 하면서 들르면, 몇몇 아이들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과자를 들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때 교사는 “과자가 먹고 싶구나?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존중받으면서도 행위는 금지되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과자를 내려놓고 선생님에게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유아기 아이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욕구와 사회 규칙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아는 것이지요.

이번 <초등학교 만 5세 조기입학 학제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된 것도 없지만, 만약 교육과 관련 없는 다른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지금도 만 5세 유아들은 2학기가 되면 초등준비로 인해 온전히 놀이를 영위하는 삶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비중을 줄이고 초등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가 교사들은 참 힘듭니다.

초등 수업처럼 시간표를 나눠 활동하게 되니까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교육인가, 훈련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표에 따라 공부하는 보편적인 교육방식이 만 5세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최고 형님인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준비만 해도 아이들,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힘들어합니다.

만 6세에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만 5세에 준비하는 초등준비도 충분히 힘듭니다.

만 5세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 준비는 만 4세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만 5세도 힘들어하는 초등준비.

만 4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

당위성에 대한 공감도 어렵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서둘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철회하여, 아이, 교사, 학부모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MEMO



토론

##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발제에 대한 토론

---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

##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발제에 대한 토론

박성경

금나래초등학교 교사

갑작스러운 만 5세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여러 해 1학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왔던 아이들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지금 아이들에서 12개월, 1년을 더 어린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놓는 상상을 하니 “이 정책은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싶었다.

초등 교사로서 유아의 발달 측면, 학교 환경 측면, 돌봄 운영 측면에서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성장하면서 그 간극이 좁혀진다고 해도 만5세와 만6세 아이들의 발달단계는 엄연히 다르다.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 배움의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다. 만 5세는 모든 것을 구체물과 함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놀이와 휴식으로 신체발달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만6세는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다. 5-7세를 전환기 교육으로 잡고 초,1-2를 유초 연계교육과정으로 잡은 것은 이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만5세는 놀이가 핵심적인 수행 활동이다. 충분한 놀이를 통해 신체발달을 완수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이다. 1학년은 놀이와 학습이 비등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아이들은 학습을 시작할 수 있으나 고학년처럼 세분화된 교과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신체활동 및 조작활동을 포함한 의도적인 놀이와 움직임으로 원리를 배우고, 개념을 이해해야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난다. 이에 1학년에서는 주어진 학습 목표를 어떤 놀이와 활동을 통해 배우도록 수업을 구성하느냐가 교사들에게 가장 큰 과제다. 2학년이 되면 놀이와 학습 중 학습으로 많은 비중이 옮겨간다.

이렇게 5-7세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발달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것이 누리과정이고, 2015교육과정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만 5세를 입학시킨다면 발달과정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 5세아이들은 학습면에서, 생활면에서 만6세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초등 1-2학년 시기는 학습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다. 학습적인 자존감, ‘난 잘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키워야 이후 학년에서 잘 배울 수 있다. 3개월씩 4단계로 나눠서 입학한다고 보면 교실안에 첫 해에는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것이다.(1개월씩 12개월로 나눠 입학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발달의 단계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급에서 동일한 성취 수준을 도달하려면 학습자들 자체도 많은 어려움

을 겪을 것이고 교사도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 예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의 온전한 발달이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인데 키와 몸무게가 늘었다고 다른 영역의 발달이 반드시 비례하여 발달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1학년 아이들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소근육의 발달, 친구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성 등이 개별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른데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한 학급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면 다방면의 발달 격차는 출발부터 불보듯 뻔할 것이다.

생활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용변처리나 급식은 만 5세 1학년에게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에 따르면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용변 처리를 하지 못해 교사가 용변처리를 도와준다.(유치원에는 보조할 교사가 있다) 가정에서 잘하던 아이도 유치원에서는 긴장되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급식도 유치원과 완전히 달라진다. 혼자 식판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쏟지 않도록 균형있게 움직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식사를 완료해야 한다. 스스로 용변 처리를 못해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급식을 제 시간에 다 먹지 못하는 아이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지금도 만 7세 어린이들 중에는 학교에서 용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나의 경험상 수업 중 한 아이의 용변 처리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일단 모든 수업 활동은 잠시 멈춰야 한다. 급식이나 용변 처리는 1년 안에 해소되겠지만, 또래관계에서 아이가 느끼는 위축감이나 친구들의 부정적 인식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린 동급생은 늘 도움을 줘야하는 동생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긍정적이고 평등한 친구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교 환경 측면에서도 만 5세 어린이들에게 학교는 적응하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실과 초등학교 교실을 떠올려 보면 직관적으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낮은 테이블과 놀이공간, 손에 닿는 나지막한 높이에 정리된 장난감들, 한 권의 이부자리까지... 가정의 편안함을 최대한 옮겨놓은 유치원 교실이다. 초등학교 교실은 아는 그대로다.

1학년 교실의 책상은 아이들의 평균 키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지금도 키가 작은 아이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거린다. 그 상태로 집중이나 학습이 어려워 의자에 발을 올리고 앉거나 온몸을 책상에 의지해서 책상과 한 몸이 되어 공부하기도 한다. 40분 동안 이런 자세로 수업을 받는 것은 신체발달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수업 집중도 떨어뜨린다.

유치원 교실과 비교했을 때 1학년 교실은 위험 천만이다. 교실을 가득 채운 책상과 의자가 가장 위험하다. 제 몸 쓰기가 익숙지 않은 1학년 아이들은 곧잘 부딪히기도 하고, 책상이나 의자를 옮기다 자칫 함께 넘어지기도 한다. 1학년 교실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이다. 어른이 옮기기도 만만치 않은 무게의 책상을 때때로 아이들이 옮겨야하는 상황도 많다. 학년말에야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책상을 옮길 수 있게 된다.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면? 상상에 맡긴다.

좀더 확장하여 유치원 공간 전체와 학교 전체를 떠올려도 마찬가지다. 모든 곳이 맨발

로 이동 가능하고, 교사가 함께 동행하거나 아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들리는 곳에 위치한 화장실, 키 낮은 세면대와 유아용 변기, 위아래가 뚫린 화장실 문, 모든 장소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맞춰져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계단 오르기도 벽찬 1학년을 위해 교실도 가급적 1층에 배치한다. 처음엔 교실 찾기도 힘들고, 학교 이곳 저곳은 미로찾기에 가깝다. 그 중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화장실이다. 1년 내내 화장실을 가지 않는 아이도 있고, 1년 내내 2~3명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도 한다. 학교는 만 5세의 공간 지각 능력을 상회하는 넓은 공간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 시설은 1~6학년이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1학년의 신체 조건만을 따로 고려하여 특화된 시설은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데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하고 안전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환경 역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만 5세 입학은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포함한 논의를 동반한다. 그래서 지금의 입학 연령 하향은 만 5세 아이를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입학 연령 하향의 이유를 보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크다. 해법을 학교돌봄 8시까지 확대로 본다면 오산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돌봄 운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치원은 오전 정규교육과정 이후 대부분의 유아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교실, 친구, 교사 등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편안한 놀이와 쉬이 가능하고 여러 교사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다. 정규과정과 방과후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초등 돌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과 돌봄교실 운영 체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교실도 대부분 분리되어 있으며 담당하는 학급 담임과 돌봄 전담사로 명확히 구분된다.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완전히 달라진 돌봄 학급으로 옮겨가고, 다시 방과후활동에 맞춰 그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루 두 세 번 서로 다른 낯선 환경을 오가며, 종일 학교안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건 피로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떨어뜨린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하루에 두 가지 다른 체계의 교육 환경을 접해야 하는 것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심리적 환경의 이동이며 두 개의 단체 생활을 접하는 정서적 체험이다. 게다가 돌봄 교실이 아무리 편한 분위기와 최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온전한 쉼과 가족이 있는 가정에 비할 수 있을까? 게다가 만 5세 아이를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남게 한다면 그 어린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 확대가 결코 만능키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학교 돌봄의 확대 요구는 높은 반면, 7시까지 돌봄 교실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11%(2021. 서울 현황)이다. 실제 7시까지 남아있는 수는 현황보다 훨씬 적다. 학교별 편차는 있지만, 한 학교에 1~2명이거나 없는 학교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요와 실제 돌봄 현황 사이의 간극은 결국, 현행 초등 돌봄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초등 돌봄 8시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 대책과 반대로 자녀의 입학 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현실은, 돌봄 교실이 입학 연령 하향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사교육으로 조기 진입과 일시적으로 증가한 학생 수로 인한 입시경쟁 과열, 1년 빠른 입직이 가져오는 문제 등 입학 연령 하향이 가져올 파장과 사회적 비용은 예측이 힘들다. 앞서 초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더라도 발달에 맞는 초등교육과정 수정, 이에 따른 교사 교육,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초등 돌봄 및 방과후 체계의 운영 대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선행과제가 많을뿐더러 무엇보다 학교생활의 체계가 만 5세 유아의 전면적인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만 5세를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아의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MEMO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